

네이버 ‘자체 AI 성과’, 카카오 ‘오픈 AI와 新시장 기회 모색’

빅테크, 상반된 AI 전략

네이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9151억… 전년비 11.7% 늘어
이용자 경험개선·매출 증대 성과

카카오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도입
실질 성과, 시장 기대충족 관전

국내 테크 기업을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사업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누가 AI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지 관심이 쏠린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AI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 및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며 두 빅테크의 상반된 전략이 앞으로 국내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 **네이버, 안정적 AI 성과로 시장 리더십 굳히기**

네이버의 경우 자체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9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16억원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으로 10.3%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커머스 부문 매출은 19.8% 성장했으며, 검색과 광고,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AI 브리핑 도입 후 검색 클릭률은 기존 대비 8%포인트 높아졌고, 이용자 체류 시간도 20% 이상 늘어나면서 AI가 실질적인 이용자 경험 개선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브리핑 활용률을 연말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



정신아 카카오 대표

고 내년에는 AI 탭을 통해 차별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AI 모델 사업자로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 X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세종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GPU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술 자립과 안정적 실적에서 오는 신뢰를 기반

으로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굳히고 있다”며 “성과가 이미 수치로 확인된 만큼 향후 글로벌 확장 전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글로벌 협업으로 AI 대중화 전략 추진**

카카오는 글로벌 협력 중심의 전략으로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 ‘카나나’를 포함해 개인화된 AI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개발자 행사 ‘이프카카오(if kakao)25’에서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서 AI 혁신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매출은 1조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고, 영업이익도 1054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특히 콘텐츠 부문 매출이 16% 이상 하락한 점이 뼈아픈 부분으로 꼽힌다. 다만 플랫폼 부문은 특비즈, 커머스, 비즈 메시지 매출

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익을 방어했다. 2분기에는 매출 2조283억원, 영업이익 1859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반등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카카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독립적 인프라와 자체 AI 모델 보유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었던 만큼, 글로벌 협업 중심의 전략이 정부 정책 기조와 엇갈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픈AI와의 제휴를 통해 빠른 AI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노리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프카카오25에서 공개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체 기술을 통해 안정적 성과를 입증했고 카카오는 글로벌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전략이지만 두 빅테크 모두 AI를 중심으로 삼고 있어 국내 AI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기업 채용

구글, 크롬 독점판정에도 ‘강제매각’ 면했다

구글, 지위 유지 위해 불법적 행동
크롬·안드로이드 매각은 ‘과도 조치’
제미니AI, 제조사 독점 탑재 금지

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은 분명 독점 사업자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기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경쟁 검색업체에 검색 쿼리·사용자 클릭 기록·웹 인덱스 지도 등을 제공 ▲이를 감시할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명령했다. 구글이 애플·삼

성 등에 지급해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본 검색 엔진 배치 비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크롬·사파리 같은 유통 경로 중심의 기존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법정에서 “사파리 내 구글 검색 사용량이 22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크롬 강제 매각 대신, 구글이 AI 기술까지 배타 계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니AI’를 특정 제조사에 독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8% 급등했고, 애플도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덕덕고·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은 제한적이지만 구글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넓혔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아이폰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는 대가로 매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한 지배력 유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독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기업 분할 요구였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창사來 첫 전 직군 신입사원 공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군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며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인재 확보에 나섰다.

3일 카카오그룹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26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테크, 서비스, 비즈니스, 디자인, 스태프 등 전 직군에 걸쳐 시행되는 그룹 단위 첫 신입 공채다.

모집에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지원자는



이 가운데 1개 회사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와 코딩 테스트(테크 직군 한정)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11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그룹 단위 공채인 만큼 입문 교육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SKT, 전국서 AI 활용·금융범죄 예방 교육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 시행

SK텔레콤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 지원과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선, 울진, 태안, 무안 등 전국 약 120곳을 연말까지 순회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일상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에서는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A.)’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의 최신 수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유심 교체, 스마트폰 점검과 클리닝, 액정보호필름 교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I 상담사가 주 1회씩 3개월간 전화로 내용을 반복 안내하는 ‘AI 콜(AI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경계선 지능 청



SK텔레콤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활용 지원 및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SKT

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과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인턴십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기회

넥슨은 올해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5기를 맞은 넥토리얼은 6개월간 직무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가 제공된다. 인턴십 종료 후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원은 정직원 전환 대상이 된다.

올해는 넥스코리아, 넥슨게임즈, 넥슨유니버스 3개 법인이 참여하며 모집 부문은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사업, 해외사업, 엔지니어, 프로덕션, 웹기획, 경영지원 등 9개 부문이다.

채용 규모는 5년 연속 세 자릿수 수준

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넥토리얼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이후 서류 검토와 직무 테스트,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8일부터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다.

넥슨은 넥토리얼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판교 사옥에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채용의나라’를 연다. 참가 신청은 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넥슨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연속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조2310억원으로 역대 최고 반기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7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